

한전공대 설립 이행협약 이달 중 마무리

한전·전남도·나주시 오늘 TF회의... 다음달 체결식 대학부지 제공·재정지원 규모·인허가 등 내용 담겨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중인 한국전력과 전남도·나주시의 이행협약 체결식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이행협약에는 대학부지 제공,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인허가 지원 내용 등이 담기며 한전공대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게 된다.

11일 한전공대설립지원단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전과 지자체 간 이행협약의 세부 협의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행협약 협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에 협약서 체결식 등을 열 계획이다.

오는 12일 한전과 전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설립지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행협약 세부사항을 조율한다.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한전 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과장급 지원단장 1명을 비롯해 팀장급 3명, 행정·시설(토목·건축)·도

시계획·분야 담당자 6명 등 총 10명으로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을 구성했다.

전남도는 설립지원단을 당장 시급한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오는 4월 정식 조직 개편을 통해 인원을 추가한 뒤 정식 직제 조직인 '과(課)' 급으로 격상 시킬 방침이다.

이행협약에는 대학 부지제공 조건과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인·허가 추진계획, 행정지원 방향 등이 담기게 되며, 한전공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남도의 한전공대 부지제공 조건과 지원계획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행협약 체결에 앞서 한전이 지자체 등에 바라는 대

학설립 지원내용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2020년 하반기를 착공 시기로 잡고, 협약이 마무리되면 최종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학교 법인 설립 절차와 부지 인허가 절차는 내년 2월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7개 부처, 한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특별법이나 특별법 제·개정 등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19 광주 시민대상' 다음달 10일까지 공모

광주시는 '2019년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4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은 광주시민으로서 학문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광주시 명예선양과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 부문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로, 각 1인을 선정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2019년 3월 11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각 부문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기타 공적증빙자료 등이다.

시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5월 21일 열리는 제54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서구 선정

광주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자치구로 서구를 선정했다. 우수 북구, 장려는 남구가 받았다.

이번 평가는 재산관리실적, 대부실적, 매각실적, 제도개선 등 5개 부문, 1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 자치구 매각대금 귀속비율은 23~28% 차등 적용된다. 더불어 서구 1200만원, 북구 1000만원, 남구 900만원 등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점검. 통일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 미국 독자 제재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상상봉실에서 직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배구단 광주 유치해야'

정순애 광주시의원 촉구

광주시의회 정순애(민주·서구 2) 의원은 11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광주에 배구단을 유치하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소년 배구 발전, 생활체육 배구 저변 확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유치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옮겨온 2014년 배구단 유치를 향해서 제출하고 한전을 방문하는 등 유치 활동을 하

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한전배구단 연고지 이전에 관련한 광주시민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73.3%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원하고 있는 만큼 배구단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포츠클럽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도내 스마트공장 추가 지원

전남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에게 지방비와 융자 등이 추가 지원된다.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전남도내 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전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컨설팅 등에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액은 사업별로 기업당 최대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선정(협약)된 도내 기업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정부지원금 50%, 기업 자부담 50%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여기에 지방비를 더 지원해 자부담 비율을 20%까지 낮춰

주기로 했다. 올해 전남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는 65억원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당 6000만원 가량을 추가 지원한다. 또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3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이자 2.5%를 지원해주고, 시설자금은 기업당 15억원 한도에서 2.4%를 제공한다.

희망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전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며 도내 70~9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기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등 제조혁신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기업지원 역량을 총동원해 도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청년 취업자 지원 나선다

시, '청년 13통장' 참여자 160명 모집 10개월 뒤 200만원도, 500명 선발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 경비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의 청년취업자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11일 "2019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만19세~34세의 근로청년이면 누구

나 지원할 수 있다.

세전소득 61만2102원 이상부터 170만 7008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지역 거주 청년 160명을 선정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10개월 뒤 200만원으로 돌려주는 '2019 청년13(일+삶)통장'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자가 160명을 넘어설 경우 4월

11일 공개 추첨을 실시한다.

선정 후 1회차 저축 10만원을 기한 내 미입금 시에는 선정포기자로 간주하고 예비후보를 순서대로 참여시킨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근로계약서(또는 고용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는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

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18~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가구 기준 564만 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부터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